

공연예술인의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관계: 긍정심리자본은 코로나제약 완충효과가 있는가?

A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erforming Artists' COVID-19 Constrain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Adherence to art activities: Do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ve buffering effect on the COVID-19 Constraints?

김초하¹

Cho Ha Kim¹

요 약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관계를 탐색하고, 아울러 긍정심리자본이 코로나 제약 완충효과가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포된 총 350부의 설문지 중 311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제약은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과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또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설 3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나타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경로계수 값을 비교해보면,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예술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핵심어 : 공연예술인,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긍정심리자본, 예술지속의도, 구조적관계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VID-19 constrain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artistic activities among performing artists, while also examining whethe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s a buffering effect on COVID-19 constraints. A survey was

¹Department Art & Cultural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llkimchohall@naver.com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22S1A5B5A17047507)

Received(August 5, 2025), Review Result(1st: August 22, 2025), Accepted(September 9, 2025), Published(September 30,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conducted with professional performing artists aged 20 or older work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dance, theater, music, and Korean traditional arts. Out of 350 distributed questionnaires, 311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supported Hypothesis 1, that COVID-19 constraints negatively affect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Hypothesis 2, that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ositively affects the intention to continue artistic activities. However, Hypothesis 3, which proposed a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COVID-19 constraints and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was not supported. Nevertheless, when comparing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groups with high and low level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f COVID-19 constraints on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was weaker in the high-capital group than in the low-capital group. These findings provide several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urthermore, a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constraints and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erceived by performing artist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new theoretical extension in the field of arts research.

Keyword : Performing artist, COVID-19 Constrain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dherence to art activities, structural relationships

1. 서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연예술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관객들과 대면을 해야 하는 공연예술분야의 특성상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공연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 연습 공간의 제한 등은 공연예술인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을 초래하였다 [1][2].

공연예술인은 창작과 공연이 단절되면 예술적 동기와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예술활동지속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특히 팬데믹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데, 공연예술 공동체는 창작자·기획자·관객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4].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와 활동 제한은 이러한 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한편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난관을 극복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유지하도록 돕는 내적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5]. 즉,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개인은 외부 제약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이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 유지와 예술지속의도 형성에 완충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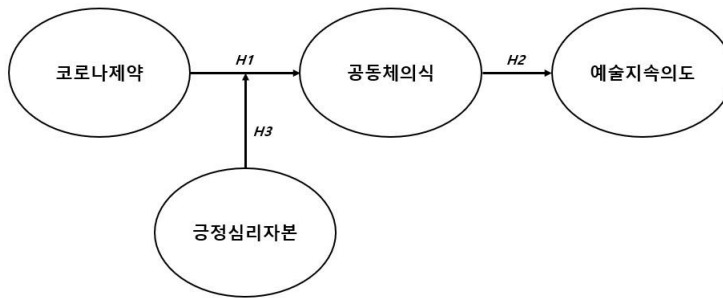
기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제약이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바 있으며 [4],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공공지원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6]. 그러나 긍정심리자본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는 최초의 연구로써 학문적 이론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H1. 코로나제약은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코로나제약과 예술인의 공동체의식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완충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2.1 코로나제약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코로나제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감염위험, 생활상의 위협, 그리고 일상생활의 변화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공연예술인의 심리적·사회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제약 요인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연구를 위해 고동우 [7]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초하·문상정 [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초하·문상정 [6]의 연구에서 측정된 바 있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협 여부와 개인적인 삶의 위협, 팬데믹 이전 일상과 현재 변화에 대한 지각 수준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 긍정심리자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긍정심리자본은 공연예술인이 보유한 긍정적 심리 상태로서, 네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등 네가지 요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난관을 극복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유지하도록 돕는 심리적 자원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uthans et al [5]이 개발한 긍정심리자본의 측정척도를 토대로 고동우·김병국 [8]이 수정하고, 이를 김초하 [9]의 연구에서 공연예술인의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한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2.2.3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McMillan & Chavis [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속감, 영향관계, 욕구충족, 친밀감의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 공통된 집단의식 상태로 정의된다. 이는 공연예술인이 소속된 예술 공동체 즉, 동료, 단체, 관객과의 유대감과 소속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McMillan & Chavis [10], Peterson & Speer & McMillan [11], 김경준 [12], 박가나 [13], 장수지 & 김수영 & Kobayasi [14]의 측정 문항을 고동우 [7]가 수정·보완하고 김초하 [9]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8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4 예술지속의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예술지속의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연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연구를 위해 김초하 [9]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측정척도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한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조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관계를 파악하고,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수예술분야 종사자 중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50부를 배포하여 3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하여 얻은 자료는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실증분석

3.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연령, 학력, 전공분야, 활동 경력, 연간평균소득, 거주지역, 성별, 협회가입여부 등의 기술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311)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93	29.9	학력	고졸	22	7.0
	30대	124	39.9		대졸	166	53.4
	40대	54	17.4		대학원재학	14	4.5
	50대	30	9.6		대학원 졸업	105	33.8
	60대이상	10	3.2		기타	4	1.3
전공분야	음악	40	12.9	활동 경력	2년미만	22	7.1
	전통예술	50	16.1		2-3년	12	3.9
	연극	101	32.5		4-5년	24	7.7
	무용	120	38.6		6-7년	31	10.0
					8-9년	29	9.3
연간평균 소득				거주 지역	10년이상	193	62.1
	100만원미만	90	28.9		서울	161	51.8
	500만원미만	83	26.7		인천/경기	91	29.3
	1천만원미만	48	15.4		대전/충청	21	6.8
	2천만원미만	44	14.1		광주/전라	27	8.7
	3천만원미만	25	8.0		대구/경북	5	1.6
	4천만원미만	10	3.2		부산/경남	3	0.9
	5천만원미만	2	0.6		강원	1	0.3
	5천만원이상	9	2.9		제주	2	0.6
성별	남자	95	30.5	협회 가입 여부	가입	166	53.4
	여자	216	69.5		미가입	127	40.8
					기타	18	5.8

3.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신뢰도평가에 앞서 문항분석법에 의하여 각 개념별로 측정문항의 전체합산치와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에서 1개 문항, 예술지속의도 1개 문항, 그리고 긍정심리자본에서는 자기효능감 1개 문항, 낙관성 1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더불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각각 .836(코로나제약), .842(공동체의식), .943(예술지속의도), .862(자기효능감), .869(희망), .837(낙관성), .863(복원력)으로서 내적 합치도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척도의 항목에 대하여 순화과정을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각 척도의 단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와 같다. 이 분석과정에서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공동체의식(2번, 6번 문항), 예술지속의도(5번 문항), 자기효능감(4번 문항), 희망(4번 문항), 낙관성(4번 문항), 복원력(3번 문항)에서 항목을 제거한 후 [표 2]와 같이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GFI, NFI, CFI 계수가 0.90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적합도 지수들이 매우 만족스러운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의 단차원적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Table 2] Uni-dimensionality of measurement scales

문항	estimate	t-value	C.R
F1. 코로나제약			.
1.코로나 19 감염확산으로 귀하는 어떤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나요?	.790	-	
2.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적인 삶의 위험’에 대하여 요즘 귀하는 얼마나 염려하고 계신가요?	.715	12.462	
3.코로나 19 발생이후 지금까지, 귀하의 일상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884	13.399	
x ² =.000(p= -), df=0, GFI=1.000, AGFI= -, RMR=.000, NFI=1.000, CFI=1.000			
F2. 공동체의식			.
1.나는 우리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674	-	
2.내가 노력하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3.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714	7.639	
4.이 사회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763	7.838	
5.나는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	.769	7.861	
6.우리 사회에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	-	
7.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793	7.942	
x ² =25.434(p=.000), df=5, GFI=.968, AGFI=.905, RMR=.021, NFI=.956, CFI=.964			
F3. 예술지속의도			.
1.나는 앞으로 예술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928	-	
2.나는 향후 예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	.877	24.560	
3.나는 스스로 예술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것이다	.857	23.189	
4.나는 앞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동안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55	23.041	

5.나는 향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예술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	-	
6.나는 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나 자신을 더 관리(발전)하고자 한다	.867	23.833	
$\chi^2=9.661(p=.085)$, $df=5$, $GFI=.987$, $AGFI=.962$, $RMR=.008$, $NFI=.993$, $CFI=.997$			
F4. 자기효능감			.
1.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는일에 자신이 있다	.879	-	
2.나는 내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에 대응할 자신이 있다	.852	16.361	
3.나는 어떠한 목표라도 달성할 자신이 있다	.670	12.615	
4.나는 나의 능력에 대해 자신 있다(#)	-	-	
5.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사람들과 자신있게 접촉할 수 있다	.600	10.994	
$\chi^2=14.009(p=.001)$, $df=2$, $GFI=.978$, $AGFI=.891$, $RMR=.022$, $NFI=.974$, $CFI=.977$			
F5. 희망			.
1.나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830	-	
2.요즘 내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652	12.110	
3.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730	13.984	
4.나는 지금 분야에서 상당히 성공했다(#)	-	-	
5.나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772	15.047	
6.나는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대처한다	.857	17.152	
$\chi^2=35.822(p=.000)$, $df=5$, $GFI=.956$, $AGFI=.868$, $RMR=.025$, $NFI=.956$, $CFI=.961$			
F6. 낙관성			.
1.나는 늘 밝은 면을 보려고 한다	.700	-	
2.나는 늘 낙관적인 편이다	.905	11.410	
3.나는 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쉽게 극복한다	.729	11.479	
4.나는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부분도 있다는 믿음이 있다(#)	-	-	
$\chi^2=.000(p=-)$, $df=0$, $GFI=1.000$, $AGFI=-$, $RMR=.000$, $NFI=1.000$, $CFI=1.000$			
F7. 복원력			.
1.나는 좌절하더라도 회복할 자신이 있다	.777	-	
2.나는 어려움을 겪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잘 대처한다	.854	15.475	
3.나는 일이 주어지면 ‘그래, 내 일이야’하고 생각한다(#)	-	-	
4.나는 종종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	.707	12.576	
5.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다	.833	15.120	
6.나는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579	10.065	
$\chi^2=22.452(p=.000)$, $df=5$, $GFI=.971$, $AGFI=.913$, $RMR=.021$, $NFI=.970$, $CFI=.976$			

주1. #은 삭제된 문항임

3.3 측정모델의 평가

Anderson & Gerbing [15]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

식 그리고 예술지속의도를 포함하는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Amos 20.0으로 추정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GFI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는 측면도 고려되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42.501(p=.000)$, $df=113$, $\chi^2/df=2.146$, $GFI=.919$, $AGFI=.890$, $RMR=.032$, $NFI=.925$, $CFI=.958$, $RMSEA=.061$). 모든 척도의 Cronbach α 값이 .829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 역시 .893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척도 분산 중 특성(trait)에 설명되는 비율을 뜻하는 평균분산 추출 값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코로나제약은 .737, 공동체의식은 .666, 예술지속의도는 .800, 긍정심리자본은 .730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척도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척도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평가에서 [표 3]의 6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척도는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의 평가결과

[Table 3] Evaluation result of the measurement model

구성개념	구성개념간 상관계수 ^a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1.코로나제약	1.000			
2.공동체의식	-.219	1.000		
3.예술지속의도	-.306	.520	1.000	
4.긍정심리자본	.026	.175	.087	1.000
Cronbach's α	.836	.829	.943	.843
구성개념 신뢰도	.893	.908	.949	.915
AVE ^b	.737	.666	.800	.730
모델 적합도	$\chi^2=242.501(p=.000)$, $df=113$, $\chi^2/df=2.146$, $GFI=.919$, $AGFI=.890$, $RMR=.032$, $NFI=.925$, $CFI=.958$, $RMSEA=.061$			

주 : a : 상관계수의 표준오차 추정구간(two-standard error interval estimate)은 1을 포함하지 않음.

b :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3.4 연구모형의 평가 및 가설의 측정

3.4.1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가설 검증(H1)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이론변수들간의 경로계수와 c.r값을 확인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은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1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42를 나타내었고, c.r값은 -3.37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4.2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2)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2를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527를 나타내었고, c.r값은 6.180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또한, r2에서 볼 때 내생변수인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는 15.8%, 27.8%가 각각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안모델의 추정결과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경로(가설)	표준화된 계수값	표준오차	C.R	p-value
코로나제약 → 공동체의식(H1)	-.242	.036	-3.379	.000***
공동체의식 → 예술지속의도(H2)	.527	.216	6.180	.000***
r2 (공동체의식) = .158, r2 (예술지속의도) = .278				
모델 적합도	$\chi^2=185.903(p=.000)$, $df=63$, $\chi^2/df=2.951$, GFI=.919, AGFI=.883, RMR=.052, NFI=.929, CFI=.952, RMSEA=.079			

주: *** : $p < .001$

3.4.3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검증(H3)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을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긍정심리자본 측정변수의 평균값(3.69)을 측정하여 평균보다 높은 집단(162명)과 낮은 집단(149명)으로 분류하였다. 긍정심리자본에 따른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X2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Table 5] Result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3	비제약모형	$X^2 = 259.124(p=.000)$, $df = 126$, $X^2/df = 2.057$, GFI = .893, AGFI = .846, RMR = .056, CFI = .947		
	제약모형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X^2 = 260.226(p=.000)$, $df = 127$, $X^2/df = 2.049$, GFI = .893, AGFI = .847, RMR = .058, CFI = .947, $\Delta X^2(1) = 1.102(p=.294)$		기각 ($p<.05$)
		높은 집단	표준화계수 = -.194, c.r = -1.879($p=.060$)	
		낮은 집단	표준화계수 = -.271, c.r = -2.730($p=.006$)	

먼저, 긍정심리자본 수준에 따른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를 free로 정하고(free 모형), 두 구성개념간의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의 X2변화량을 살펴보았다. 검증결과 $\Delta X^2(1) = 1.102$ 로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3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나타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경로계수 값을 비교해 보면,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5]에 제시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예술지속의도를 연구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탐험적인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순수예술분야 중 20대 이상의 전문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배포된 350부 중 311부를 SPSS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42를 나타내었고, c.r값은 -3.37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527를 나타내었고, c.r값은 6.180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X2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Delta X^2(1) = 1.102$ 로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3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나타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경로계수 값을 비교해 보면,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여러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순수예술 분야에 속해있는 전문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이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탐험적으로 시도되는 최초의 연구로서 예술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과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의 경로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완충효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심리적 기제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 긍정심리자본의 측정 척도는 본질적으로 공연예술인이 지각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경험의 패턴을 장

기적으로 파악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공연예술인의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가능하며, 이를 기초로 정보에서 지원하는 공연예술인의 지원사업에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 긍정심리자본 등 사용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탐색적 수준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타당도가 완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 긍정심리자본 등 제시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모형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의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여러 변수들을 포괄한 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U. Zoljargal,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Marketing of the Performing Arts", *Oradea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vol. 7, no. 1, June 2022, pp. 120-130, doi: 10.47535/1991ojbe151.
- [2] S. H. Lee, "A Study on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in the COVID-19 Er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pp. 567-579, November 2020, doi: 10.17703/JCCT.2020.6.4.567.
- [3] C. Dinardi, A. Wortman, M. Muñoz Hernández, "It's been a roller coaster: Insights from performing artists on the COVID-19 pandemic and cultural policy", *Cultural Trends*, vol. 33, no. 5, pp. 1-17, November 2023, doi: 10.1080/09548963.2023.2227865.
- [4] C. H. Kim, S. J. Moon, "A performing artist's percep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 12, no. 3, pp. 353-363, June 2023, doi: 10.29056/jncist.2023.06.08.
- [5] 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S. M. Norma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vol. 60, no. 3, September 2007, pp. 541-572.
- [6] C. H. Kim, S. J. Moon, "Artist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life satisfaction: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upport",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 13, no. 1, pp. 57-69, February 2024, doi: 10.29056/jncist.2024.02.06.
- [7] D. W. Ko, "What Makes People Overcome COVID-19 Pandemic?: Vulnerable or tolerable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21, no. 3, August 2020, pp. 399-424, doi: 10.21074/kjlcap.2020.21.3.399.

- [8] D. W. Ko, B. K.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exper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17, no. 1, August 2016, pp. 179-198, doi: 10.21074/kjlcap.2016.17.1.179.
- [9] C. H. Kim, "Analysis of the Effects of Public Support for the Arts and Culture :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jective well-being, and adherence to art activitie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1.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5767568>.
- [10] D. W. McMillan,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no. 1, January 1986, pp. 6-23, doi: 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
- [11] N. A. Peterson, P. W. Speer, D. W. McMillan,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6, no. 1, January 2008, pp. 61-73, doi: 10.1002/jcop.20217.
- [12] K. J. Kim,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Korea",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Major in Rural Social Eng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9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4462284>.
- [13] G. N. Park,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565026>.
- [14] S. J. Chang, S. Y. Kim, E. Kobayashi, "Cultural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Different Age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8, no. 2, March 2014, pp. 1-24, doi: 10.21193/kjspp.2014.28.2.001.
- [15] J. C. Anderson, Gerbing, D. W.,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no. 3, May 1988, pp. 411-423, doi: 10.1037/0033-2909.103.3.411.